

문화전당 門이 열린다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건물들의 위용이 드러나고 있다. '빛의 숲'을 건축철학으로 승화한 문화전당은 내년 7월 부분 개관을 거쳐 9월4일 전면 개관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4개 신축 건물 완공·평화교류원 리모델링...추진단, 시민에 공개

광주의 문화발전소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주요건물이 지난달 31일 완공됐다. 지난 2005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부지에서 첫삽을 뜬 지 9년 만이다.

문화전당을 건립하고 있는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단장 김성일·추진단)은 내년 7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에 맞춰 문화전당을 일부 개관한 뒤 9월4일 전면 개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화전당은 연면적(건물 각종의 바닥 면적)을 합한 넓이·16만1237㎡로 지금까지 최대였던 국립중앙박물관(13만7290㎡) 보다 넓은 초대형 복합문화시설이다.

문화전당 주요 건물과 개관 콘텐츠, 문화전당 5개원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한다.

문화전당 5개원 기능

- 민주평화교류원
- 아시아 문화 교류·협력의 중심
- 아시아문화정보원
- 문화연구·자원수집·교육센터
- 문화창조원
- 새 세상을 위한 창조자들의 집
- 아시아예술극장
- 아시아 동시대 예술의 허브
- 어린이문화원
- 어린이 콘텐츠 제작·유통 플랫폼

거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전시가 진행된다. 복합전시관 3, 4관에서는 콘텐츠 생산자(창작자), 전문가(연구자), 관람객의 상호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는 연구랩과 제작팀의 창·제작 결과물이 상설 전시된다. 복합전시관 5관은 특별전 공간으로 지역·국내·국외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식을 교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다목적홀에서는 생활에서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일상적, 대중문화적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아시아예술극장

아시아예술극장의 핵심 운영목표는 아시아 동시대의 공연예술 작품을 선보이고 창작, 유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세계 유명극장, 페스티벌, 예술단체와 공동제작을 통해 수준 높은 작품을 적은 비용으로 만들고 유통(순회공연)하는 제작·유통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난 5월부터 빈 페스티벌,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등에서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는 차이밍량(Tsai Ming-liang)의 '당나라의 승려(The Monk from the Tang Dynasty)'와 호추니엔(Ho Tzu Nyen)의 '만마리의 호랑이들(Ten Thousand Tigers)'이 그 결과물이다.

아시아예술극장은 제작·유통 시스템을 갖춘 전문극장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공동제작자간 협력망을 통해 기획단계부터 순회공연(유통망)을 갖추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공동제작 및 제작을 선도하면서 동시대 공연예술의 창·제작의 거점이 된다.

◇어린이문화원

어린이문화원은 교육보다는 '놀이와 문화', '창작활동'이 중심이 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놀이와 문화,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체험형 문화콘텐츠의 제작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시아문화 기반의 어린이 문화 체험장을 구축하여 '자연과 생활', '지식과 문명', '예술과 상상'을 주제로 체험관이 구성돼 있다. 어린이문화원은 오는 2015년 문화전당이 개관할 때, 아시아의 스포츠와 놀이, 아시아의 건축, 아시아의 소리과 음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어린이문화원은 또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어린이문화콘텐츠를 국내외 기관들에 보급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민주평화교류원

민주평화교류원은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바탕으로 광주민화운동의 핵심가치를 아시아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대표적 공간인 교류지원센터는 세계 유수의 복합문화시설과의 기관간 양해각서를 통해 공연, 전시, 포럼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진행한다. 세계 문화예술계 정상들이 광주에 모여 문화예술의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대형 국제회의 개최도 추진한다.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 디지털 자료구축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 이는 문화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이다.

옛 전남도청 등 보존 건물 공간의 민주인권평화기념관(가칭)에서는 광주형성 당시 열흘간의 이야기를 기승전결이라는 서사구조에 따라 예술적 콘텐츠로 선보인다. 민주평화교류원 리빙센터에서는 교육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관람객을 위한 미디어 안내 프로그램을 비롯해 5·18 당시 광주시민의 삶과 역사적 현장을 온라인에서 가상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아시아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에 대한 연구, 아시아문화자원 수집·활용, 아시아의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 등을 도맡는다.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는 지역연구를 기반으로 한 다학제(多學制)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지식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초학술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문화전당의 콘텐츠 기획·개발 등에 필요한 배경지식, 이론적 틀, 학술적 담론을 만든다. 또한, 국제컨퍼런스, 포럼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출판활동 등을 통

해 문화전당과 국내외 전문기관 및 연구자간 학술교류의 장소 제공한다.

아시아문화자원센터는 미래가치에 초점을 둔 아시아 문화자원을 조사·수집한다. 영상,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자원센터에서 수집된 자료는 체계적 정리·분류와 심화연구를 거쳐 온라인(가칭 컬처아시아)과 오프라인(라이브러리파크)을 통해 공개된다. '라이브러리파크'는 하나의 주제 아래 도서, 기록물, 사진, 영상, 음향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로 이루어진 주제 전문관으로 구성된다. 이 공간은 기존의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등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아시아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아시아문화아카데미에서는 아시아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담론과 비전을 형성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교육·양성한다. 문화전당의 개관 준비와 개관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실무인력도 길러낸다.

◇문화창조원

문화창조원은 연구 개발의 핵심조직인 연구랩(아시아연구랩·동시대예술랩·미디어랩·과학기술랩·디자인랩)과 스튜디오(기계조형스튜디오, 디지털AV스튜디오, 복합스튜디오)을 골격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이 공간에서 지역연구기관, 문화기관, 산업과 협력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한 뒤 복합전시관에 전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창조원은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복합전시관 1, 2관에서는 아시아의 사상·종교·문화를 주제로 한 예술과 접점이 숨어 융합된 콘텐츠를 통해 아시아의 과



민주평화교류원 방문자센터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전시관



아시아예술극장 (중극장)



어린이문화원

개관 준비 TF 구성 콘텐츠 마지막 손질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개관 모드에 돌입했다.



문화전당 신축 건물 준공이 완료됨에 따라 전당 건립을 맡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은 전당 조직 구성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추진단은 전당기획과를 중심으로 업무와 인력을 개편해 전당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는 아시아문화개발원과 함께 개관준비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성일 추진단장을 팀장으로 관련 과장, 광주시, 아시아문화개발원 사무국장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전당 설립과 월별 콘텐츠, 프로그램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 관계자까지 참여하는 관계기관 정례회의도 이달 첫 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당 조직 설립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시행령 개정과 조직 구성, 인력 채용 등 전당 설립 절차도 미리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년말부터 진행해온 릴레이 공개세미나, 자문회의에서 전당 운영방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화전당은 2005년 공사가 시작된 이래 10여년 만에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복합시설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전당을 이루는 5개원 가운데, 아시아예술극장과 문화창조원, 아시아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은 지난 10월 31일 공사가 완료돼 14일 준공했다.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 상무관, 민원실 등 광주민주화운동의 유적으로 보존된 민주평화교류원은 공간 구성안이 재설계돼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김성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내년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 준비뿐만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 관점에서 전당의 비전을 실현할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